

217.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

(84) 파열되기 쉬운 충전재 코트

□ 파열되기 쉬운 충전재 코트

해설)

- 클리닝에 의해서 안감의 봉제 부분이 심하게 활탈되어 봉제선이 파열되었음.
- 이 제품의 겉감은 나일론 65 %, 폴리에스터 35 %로, 폴리에스터 충전재가 들어 있는 제품으로 안감은 나일론 100 %임. 합성 섬유인 나일론은 장섬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꼬임을 주지 않아도 실을 제조할 수 있으나, 무연사 필라멘트 소재는 광택은 있지만 꼬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미끄러지기 쉬운 성질이 있음.



- 이 제품의 경우 활탈성이 높은 성질의 천을 그대로 봉제하여 클리닝이나 세탁 시 충전재에 다량의 액체가 흡수되어 천에 큰 부하가 예상되는 제품에 사용한 것이 문제임.

- 구체적으로는 오버 락 처리 등의 봉목처리나 파이핑 등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음(8 mm 정도의 시접이 있지만 착용에 의해 충전재의 비빔작용이나 클리닝 등에 의해서 서서히 활탈됨). 또, 이러한 천의 제품화에 임해서는 슬립 멈춤 가공, 슬립 멈춤 테이프 사용 등의 가공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정액을 짜기 시작할 때 큰 힘이 봉제선에 걸려 파열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표준 공정의 클리닝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고는 방지할 방법이 없음.

♠ 자료출처 : 송종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 한국세탁업중앙회, 2011

www.textilecare.kr